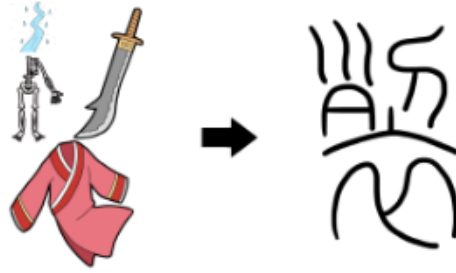


3(2)
-
111

회의문자 ①



裂

찢어질
렬

裂자는 '찢다'나 '쪼개다', '터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裂자는 衣(옷 의)자와 列(벌릴 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列자는 뿔조각을 늘어놓는다는 의미에서 '벌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裂자는 이렇게 '벌이다'라는 뜻을 가진 列자에 衣자를 결합한 것으로 본래의 의미는 '(옷을) 찢는다'였다. 뿔조각을 이리저리 늘어놓았다는 뜻의 列자를 응용해 옷을 찢는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裂자는 단순한 의미에서의 '찢다'나 '쪼개다', '분할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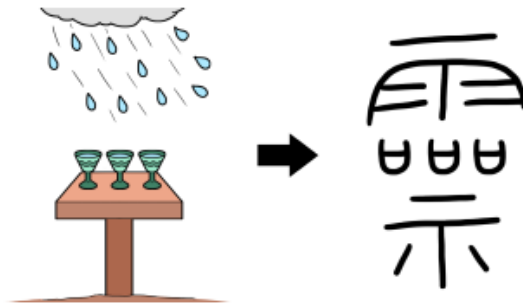
소전

裂

해서

3(2)
-
112

회의문자 ①



靈

신령 령

靈자는 '신령'이나 '영혼', '혼백'과 같은 영적인 존재를 뜻하는 글자이다. 금문에 나온 靈자를 보면 雨자와 口(입 구)자, 示(보일 시)자가 靈 결합해 있었다. 여기서 口자와 示자는 제단에 놓인 술잔이나 그릇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금문에서의 靈자는 하늘의 신에게 제를 지내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示자와 술잔이 巫(무당 무)자로 바뀌면서 지금의 靈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靈

금문

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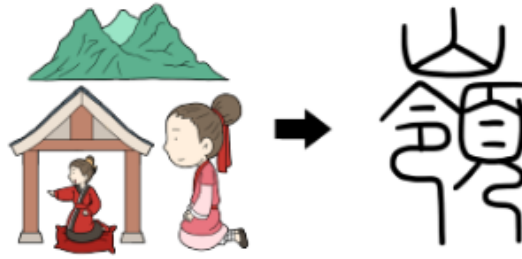
소전

靈

해서

3(2)
-
113

형성문자 ①



嶺

고개 령

嶺자는 '고개'나 '산봉우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嶺자는 山(되 산)자와 領(거느릴 령)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領자는 수하를 거느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거느리다'나 뜻을 가지고는 있다. '고개'나 '산마루'는 산과 산을 연결하는 줄기를 말한다. 이것을 산맥(山脈)이라고 한다. 그러니 嶺자는 '거느리다'라는 뜻을 가진 領자에 山자를 결합해 여러 산을 거느리고 있다는 뜻을 표현한 글자라 할 수 있다.

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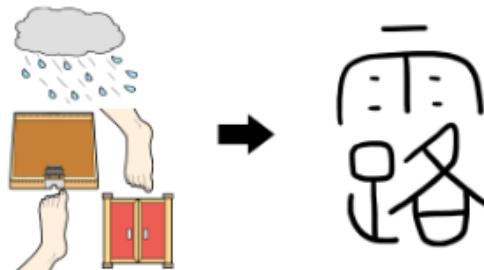
소전

嶺

해서

3(2)
-
114

형성문자 ①



露

이슬
로(:)

露자는 '이슬'이나 '진액', '줄은 술'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露자는 雨(비 우)자와 路(길 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路(길 로)자는 사람의 발을 그린 것으로 '길'이라는 뜻이 있다. 이슬은 공기 중의 수증기가 차가워진 물체에 부딪히며 생기는 물방울을 말한다. 露자는 그 이슬을 뜻하기 위해 路자에 雨자를 결합한 것으로 길 위해 땀을 맑고 깨끗한 이슬을 뜻하고 있다. 새벽의 이슬은 맑고 깨끗한 물을 뜻하기도 하기에 露자는 '줄은 술'에 비유되기도 한다.

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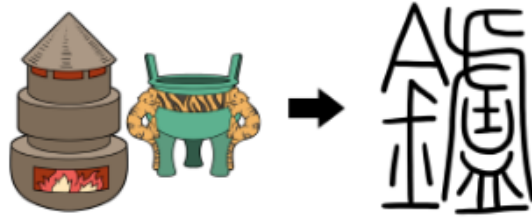
소전

露

해서

3(2)
-
115

회의문자 ①



爐

화로 로

爐자는 '화로'나 '향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爐자는 火(불 화)자와 盧(밥그릇 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盧자는 제사를 지낼 때 불을 지피는 용도로 사용하던 화로를 그린 것으로 호랑이 무늬가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盧자가 '화로'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지만 후에 盧자가 나라 이름이나 성씨로 쓰이게 되면서 소전에서는 여기에 金(쇠 금)자를 더한 鑪(화로 로)자가 '화로'를 뜻하게 되었다. 화로의 재질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金자가 아닌 火자를 넣은 爐자가 만들어지면서 '화로'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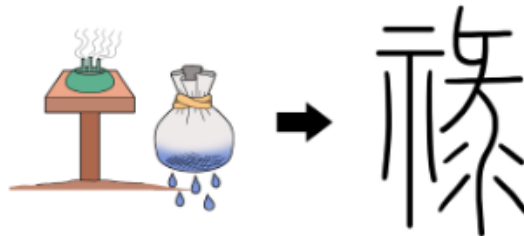
소전

爐

해서

3(2)
-
116

회의문자 ①



祿

녹 록

祿자는 '행복'이나 '봉급'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祿자는 示(보일 시)자와 𠂔(새길 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𠂔자는 보자기에 염료를 넣어 짜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祿자의 본래 의미는 '복(福)을 내리다'였다. 제사를 지냄으로써 신이 나에게 복을 내려준다는 의미인 것이다. 하지만 후에 祿자는 관리의 '봉급'을 뜻하게 되었는데, 이는 나라님이 주는 봉급을 신이 복을 주는 것에 비유했기 때문이다.

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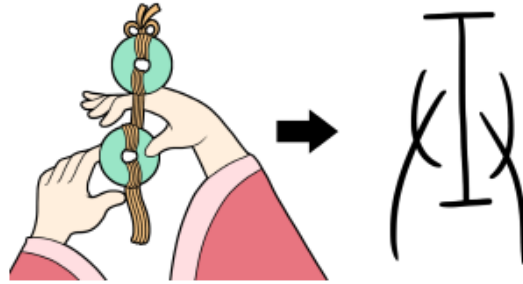
소전

祿

해서

3(2)
-
117

회의문자 ①



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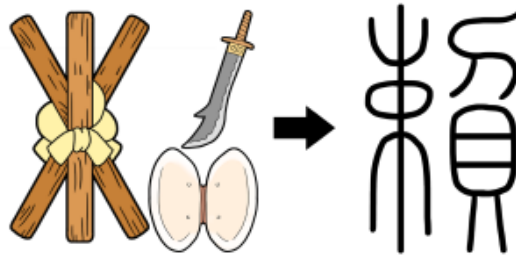
희롱할
롱:

弄자는 '가지고 놀다'나 '희롱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弄자는 玉(구슬 옥)자와 升(받들 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弄자의 갑골문을 보면 양손에 옥을 쥐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노리개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弄자의 본래 의미는 '놀다'나 '가지고 놀다'이다. 弄자는 후에 뜻이 확대되면서 사람을 놀리거나 장난친다는 의미에서 '희롱하다'나 '업신여기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118

회의문자 ①



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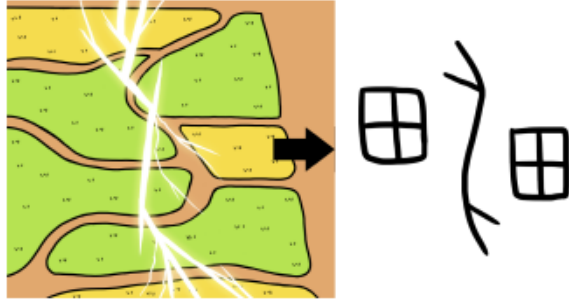
의뢰할
뢰:

賴자는 '의뢰하다'나 '의지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賴자는 刺(어그러질 랄)자와 貝(조개 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刺자는 '위배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니 刺자에 貝자가 결합한 賴자는 '위배되는 돈'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賴자의 본래 의미는 "영리를 위해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다. 그러니까 글자가 결합한 것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쓰였다. 그래서 賴자는 본래 '영리'나 '수익'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뜻이 확대되면서 지금은 '의지하다'나 '의뢰하다'라는 뜻으로만 쓰이고 있다.

소전	해서

3(2)
-
119

회의문자 ①



雷

우레 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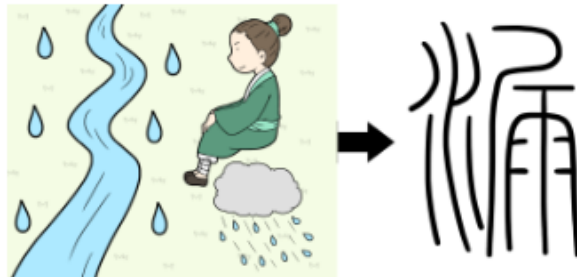
雷자는 '우뢰'나 '천둥', '사나움'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雷자는 雨(비 우)자와 田(밭 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雷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둥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재미있는 발상이 적용되었다. 천둥소리는 귀로는 들리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갑골문에서는 소리

로만 들리는 천둥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논밭 사이로 소리가 휘돌아 나가는 모습이 𩇛𩇛𩇛 그려져 있었다. 소전에서는 날씨와 관련된 글자임을 뜻하기 위해 雨자와 3개의 논밭이 그려졌었지만, 해서에서는 밭이 하나로만 표현되면서 지금의 雷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120



회의문자 ①



漏

샬 루:

漏자는 '(물이)새다'나 '틈이 나다', '빠뜨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漏자는 水(물 수)자와 漏(샬 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漏자는 사람(尸)의 엉덩이 부분에 비(雨)를 그려 넣은 것으로 '새다'라는 뜻이 있다. 집안으로 물이 샌다는 뜻을 雨자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본래 漏자가 '새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지만 후에 水자가 더해지면서 물이 샌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다.

	
소전	해서